

# 도심 속의 작은 농원, 한국법제연구원 치유 농업 동호회를 소개합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연구위원  
(치유농업 동호회 제1기 회장)  
kma@klri.re.kr



2020년 초, COVID-19가 한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해외로 통하던 관문들이 차례대로 닫히고, 교류회나 축제 등 많은 인파가 몰리는 대형행사들이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이처럼 COVID-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 블루'로 불리는 우울감을 호소하거나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면 접촉이 줄어들면서 각자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생명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물과 자연이 주는 슬로우 라이프의 소중함과 안정감의 가치가 더욱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연구원 구성원들의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으며, COVID-19가 일상화되면서 고립감과 답답함을 해소할 방안으로 연구원의 옥상 공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옥상텃밭과 옥상정원 가꾸기에 관심을 가진 연구원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2020년의 늦은 어느 봄날, 연구원 청사 옥상 중 일부 공지(空地)에 사용허가를 받아 경작이 가능한 구역으로 조성하고 훼손된 옥상정원을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6월에는 동호회 차원의 활동과 경영지원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동호회를 조직하고 [도심 속의 작은 농원, 치유농업을 통한 건강 증진을 위한 '치유농업 동호회']가 발족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옥상정원과 옥상텃밭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옥상을 가꾸는 사람들이 차례로 늘어나면서, 방치되던 옥상이 이제는 직원들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게 되

었고, 계절별 다양한 꽃과 식물이 자라는 환경도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에 훼손된 토양으로 방치되었던 척박한 옥상은, 봄을 지나 갖가지 식물들이 자라나 색색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자, 나비가 날아들더니 어느새 소금쟁이가 고인 빗물위로 뛰어다니는 곳이 되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무성해지는 부추, 상추, 루꼴라, 얼갈이, 열무 사이로 무당벌레가 날아다니더니, 토마토와 감자, 가지, 수박, 참외가 차례로 노란꽃, 흰꽃, 보라색꽃, 샛노란꽃들을 경쟁적으로 피우기도 했습니다. 매미가 힘차게 울던 짧은 여름을 지나,



목화의 성장일대기와 무당벌레



농업기술센터 전문가 경작지도



옥상정원에서 도시락 오찬



치유농업동호회 총회



옥상텃밭 수확물(수박, 파, 토마토)



긴긴 장마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가지와 토마토 나무들은 또다시 힘을 내어 열매를 무성하게 뽐내는가 하면, 대파는 더욱 단단하게 자라나 동호회 회원들에게 수확의 기쁨도 차례로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주말이면 이따금씩 초등학교 아이를 키우는 직원들이 옥상텃밭을 아이와 함께 찾아와 밤들 같은 작은 손길로 텃밭 가꾸기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소통의 공간으로 옥상텃밭과 정원이 자리를 잡으면서 어느새, 한국법제연구원의 옥상은 생명력 가득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동감 가득한 공간이 된 것은 어쩌면 봄이 시작되던 5월의 어느 날, 옥상텃밭에서 꿩이질, 호미질을 하면서 고랑을 만들던 숨은 땀방울들과 이룬 출근길에 매마른 고랑 사이로 물을 주던 따뜻한 마음이 모이고 모인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또한, 옥상정원이나 옥상텃밭은 이러한 정서적인 효과 외에도 옥상 녹지화를 통하여 건물 냉난방비가 절감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있다고 하고, 녹지 비율이 증가하면 도시열섬 현상도 감소한다고 하니, 한국법제연구원 옥상의 푸르른 녹지공간들은 대한민국의 그린뉴딜 정책에도 미력하나마 일조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치유농업 동호회'는 지금도 강한 직사광선으로 산성화되어 경작에 부적합한 상태가 되어버린 토양을 개량하고, 다양한 식물이 서로 어울려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양한 곤충과 조류들이 찾아드는 옥상으로 만드는 작업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생적 친환경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동호회 회원들 모두는 경작하는 식물의 종류를 구획화하여 다양화하고, 친환경퇴비와 친환경살충제를 활용하여 작물을 키움으로써,

연구원 구성원 누구라도 수확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에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 전문가들을 연구원 옥상 텃밭과 정원에 초청하여, 옥상토양 환경에 대한 기초진단 및 추천 작물, 구획관리 요령 등 경작지도를 받기도 하였으며, Q&A 진행을 통하여 옥상 녹화사업에 대한 정보와 기술도 전수받았습니다. 같은 날, 옥상 정원에서 도시락 오찬을 하며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의 시간도 가졌으며, 창립총회를 통하여 임원단을 선출하는 한편, 향후 동호회 운영 방안에 대하여서도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도시농업 농사체험장 탐방 행사를 통하여 '도심 속 도농상생 농사체험학습공간'을 견학하면서 동호회 회원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11월 이후 겨울철 휴경기간동안 운영할 프로그램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치유농업 동호회' 회원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법제연구원 구성원들이 옥상 공간을 편안하고 생동감 넘치는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동호회 회원 모두가 지속적으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 '치유농업 동호회'는 앞으로도 자발적인 가드닝과 경작 활동을 통하여 자연이 주는 생명력의 소중함을 공유하면서, 구성원 간 소통의 기회를 넓히는 장으로 옥상 공간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향후 경작과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나눔과 만남의 동호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